

연꽃에서 배우는 인생의 교훈

아침을 열며



정연권 색향미야생화연구소장

7월의 연꽃은 눈부시게 아름답다. 여기저기 연꽃 피는 소식이 들려오니 분명 연꽃 세상이 왔다 보다. 세상은 엉망진창임에도 진흙 속에서 피어난 꽃은 아름답기만 하다. 초록 잎 위에 피어난 백련과 홍련 꽃송이가 찬란하게 빛난다. “세상은 색으로 이뤄졌구나”라는 말에 실감한다.

연꽃과 인연은 근대에서 비롯됐다. 파견 나갔던 부대 식당에 쓰인 글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 아침이슬은 물결처럼 진흙은 묻지 않고, 고상한 기개와 같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청렴결백함과 겸손한 기품을 간직하는 승운동 정성을 말한다.” 이 글을 식사 때마다 보고 추억 속에 후임병이 써놓아 지금도 가끔 읽어보며 젊은 날을 추억해 본다. 전역한 뒤 이 글이 주돈이의 ‘애련설(愛蓮說)’에서 나왔음을 알았다. 필자가 야생화 연구와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단초가 된 것도 이때부터다.

새벽과 아침 경계에 연지(蓮池)로 발길을 향했다. 심판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다. 허탈하면서 아픈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다. 연꽃을 바라보다. 내가 꽃이 되고 꽃이 내가 되는 시간이다. 연꽃 세계에 들어간 나를 발견하게 됐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나 자신을 돌아봤다.

아침이슬을 밟으며 풀벌레 소리를 따라 걸었다. 뾰꾸기 소리가 화답한다. 물고기가 수면 위로 튀며 춤을 추니 잔물결이 일어 고요함을 깨우고 있다. 구만제

의 연지는 러브(Love) 모양의 데크와 홍련과 백련 등이 구간별로 식재돼 색다른 면을 보여준다. 순결한 백련이 밤을 잠재우고 있다. 화사한 홍련이 아침을 깨우려 준비하고 있다. 수련은 수련수련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꽃 무리가 사치스럽거나 교만하지 않다. 자태가 고상하고 품위 있다. 다정한 정감과 친근하면서 볼수록 사랑스럽다.

물안개에 젖은 데크를 뚝뚝뚝 걷는다. 아침이슬을 머금은 향기가 다칠까 봐 조심스럽다. 맑고 은은한 향기가 조금씩 흘러나온다. 향기에 취하여 한참을 멍하게 서 있었다. 벤치에도 앉아 멍하니 풍광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을 머금은 꽃송이가 우아하고 기품있게 맞이한다. 꽃 속으로 스며든 빛은 꽃을 휘감아 아름답다. 고추잠자리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제 막 우화 해 날개를 말리는 중인가 보다. 꿀벌들도 찾아와 꽃 품속으로 안긴다. 나비도 동행하며 입체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빛속에서 연꽃 풍경을 보고 싶었다. ‘한시 이야기(정민)’에 소개된 최해의 ‘빛속의 연꽃’ 시(詩)가 큰 감명을 줬기 때문이다. “푸른 옥으로 뒷박을 만들어 하루종일 맑은 구슬을 담고 담는다.”는 구절이 좋아 비가 내리자 달려갔다. 눈앞에 필설로서 형언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으로 가득했다. 혼자 있는 연지가 편안했다. 평화였다. 누가 보면 청승맞다고 할 정도로 멍하니 연잎을 바라보았다. 후드득 후드득 연잎으로 세찬 비가 내린다. 그런데 연잎이 깨끗하고 비에 젖지 않을까 궁금했다.

‘KISTI의 과학향기’에 답이 있다. 연꽃잎 표면은 3~10μm 크기 융기들로 덮여 있고 발수성으로 코팅돼 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연잎 위에 떨어진 물방울은 잎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흘러내리게 된다. 연꽃잎과 물방울의 접촉 면적

은 2~3%밖에 되지 않는다. 물방울이 공기 위에 떠서 있는 모양이다. 학술적으로 ‘연꽃잎 효과(lotus effect)’라 한다.

빛물은 순살순살 옥구슬이 돼 또르르 앞 가운데로 모여 대략 30초에 한 번씩 비워졌다. 뒷박은 씹 없이 계속되었다. 고인 물을 잡아냈다. 한 손에 들어왔다 나가는 정도다. 빛소리가 연잎 사이로 숨어든다. 숨어있던 향기가 나와 빛물과 연잎 등 교집합으로 신묘한 향이 됐다. 세찬 비는 동편제 소리처럼 우렁차고 기개가 넘친다. 바람에 연잎이 부딪치는 소리는 북소리같이 들렸다. 새소리는 추임새였다. 연밭의 마이크로 구례를 넘어 대한민국에 울려 퍼졌으리라.

연꽃과 연잎을 있게 지탱해 준 게 뭘까 생각한다. 바로 뿌리가 아니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양분과 물을 공급하는 연근(蓮根)이다. 연근에는 구멍이 8~11개 정도 되나 보통 9개가 있다. 여기로 산소가 들어가 쑥쑥 자라게 하는 생명 혈(穴)이다. 뿌리 덕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그런데 꽃만이 고고하고 깨끗한가? 진흙이 더러움의 상징이요 대명사인가? 아니다. 연꽃이 피는 연지의 흙은 더럽지 않다. 물도 깨끗하고 정갈하다. 전체를 정확히 보고 양쪽을 살펴본 후 판단하면 오후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일은 그러하지 않다. 억울하고 답답한 내 마음을 대변하여 주고 있구나.

연꽃 세계의 신묘함에 감탄하면서 마음이 정리됐다.

“꽃이 져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를 만나며 새는 동지를 떠나야 날 수 있다.”는 말을 음미해 본다. 나 자신을 성찰한다. 원망과 미움이 사그라졌다. 마음이 가벼워진다. 머리가 맑아진다. 그래.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살자. 이제 내 인생을 살자. 나는 자유인이자.

KIA타이거즈 25억에 소탐대실 할텐가

시민 정서 외면한 협약 바뀌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의 개·보수 비용을 광주시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크다. 광주시의 비용 부담은 야구장 건립 당시 광주시와 기아간 계약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챔피언스필드에서 기아가 올리는 수익이 매년 수백 억 원에 이르는데, 여기에 개·보수 비용까지 광주시가 부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광주시민 모두가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할 사안이다.

KIA타이거즈가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챔피언스필드에는 광주시 400억 원, 국비 300억 원, 기아차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당시 광주시는 기아차가 300억 원을 투입한 만큼 2014년부터 2039년까지 25년 무상 임대료를 내겠다고 이 기간 챔피언스필드에서 나오는 수익은 모두 기아가 가져간다는 엄청난 특혜다. 이에 광주시와 기아는 2017년 개·보수와 관련된 재협약을 맺었고, 추가 협약과는 별도로 기아가 광주시 30억 원의 체육발전기금을 15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매년 KIA타이거즈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 협약으로 개·보수 비용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챔피언스필드가 거둔 총 매출은 454억 3800만 원이다. 2022년에는 475억 7400만 원이었다. 타 구단과 비교할 때 기아차의 지역사회 기여금도 미미하다고 한다. 이번에 개·보수에 들어갈 예산이 25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 기아의 행태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에 다름 아니다.

요즘 승승장구하는 KIA타이거즈가 시민에 주는 즐거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하지만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챔피언스필드의 개·보수 비용을 시민의 혈세로 넘기겠다는 것은 시민의 정서를 외면한 처사다. 광주시와 기아는 협약이 타당하지 않음을 면밀히 재검토해 시민이 수긍할 만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타협이 어렵다면 챔피언스필드의 수익과 비용을 모두 공개해 시민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협약이라면 하루빨리 바꾸는 것이 옳다.

차별화 부족한 전남도 데이터센터 유치

파격 인센티브 등 생태계 시급

전남도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데이터센터 유치 전략이 현실성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최선국 의원이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도가 목표로 설정한 데이터센터 100기 유치계획에 대해 “목표만 있을 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최근 해남에 25기, 광양·순천에 30기, 영암에 20기 함평에 20기, 장성에 5기 등 총 100기의 데이터센터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과 밀집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분산에너지법이 시행 중이다. 정부가 지방 데이터센터 건립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장밋빛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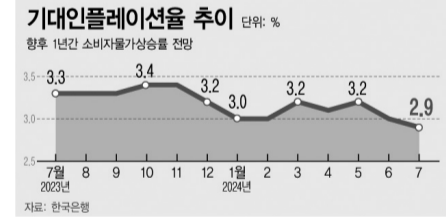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내 데이터센터는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전력 계통·수급 부담 문제에 따른 적기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분산에너지법 제정을 계기로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 수도권 설립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센터 수요 기업들은 고객사들의 수요와 긴급 상황 시 대응 등 비용과 시간 절감을 이유로 수도권 데이터센터 설립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

결국 전남도의 차별화된 유치 전략이 없는 데이터센터 유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자체 동력원으로 삼는 데이터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기존 전력망 부하 문제가 해결돼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전남도의 데이터센터 유치가 물거품 될 우려가 크다. 기업이 지방 이전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각종 규제를 푼 투자유치 생태계가 시급하다.

전남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고다. 서남권은 햇빛과 바람 등의 청정 에너지원이 풍부하며, 동부권은 전남형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꾀하는 중이다. 풍부한 전력을 토대로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절호의 기회다. 허술한 전략으로 데이터센터 유치가 나선다면 영영 기회를 놓칠 공산이 크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서석대



지난 23일 한동훈 대표 선출로 막을 내린 국민의힘 전당 대회는 ‘과거사 폭로 싸움’이었다. 후보들은 경쟁자를 흠집 내기 위해 자해성 폭로도 서슴지 않았다.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로부터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받은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한 후보가 언급한 ‘패스트 트랙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국회에서 발생한 여야 충돌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쟁점법안을 패스트 트랙 지정 처리할 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저지했다가 기

다.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사자들은 즉각 공직을 떠나야 할 만큼 매가톤급이다.

격렬한 상호 비방과 폭로전 속에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한 대표는 경선 과정의 갈등을 신속히 봉합하려 하겠지만 뜻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국회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정조준하고 있어서다. 여당 대표 후보 간 폭로전이 야당에는 더 없이 좋은 공격거리를 제공했다. 국회 전당대회야 야 공방의 신호탄이 오른 셈이다.

우리는 폭로 정치와 이에 맞선 초강경 대응이 정치권 파행과 정국 급랭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슬하게 목격했다.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여야 간 정쟁이 국민의 좌절감을 깊게 하고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희망을 주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의 허탈감만 부추기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상생의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인 채, 경제는 바닥을 기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무엇 하나 속 시원한 일이 없다. 이래저래 더운 여름이다.

박성원 편집국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 보도 실천 지역 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